

전주시민축구단, 내달 반전 노린다

5월 1일 전주서 춘천시민축구단과 K4리그 홈경기

전주시민축구단이 5월 반전을 노린다. 전주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전주종합운동장에서 K4리그 10라운드 춘천시민축구단과의 홈경기를 갖는다. 현재 승점 10점으로 10위를 달리고 있는 전주는 이날 승리로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최근 전주는 3연패로 순위가 하락했지만, 5월

첫 경기에서 공격축구를 승리하며 반전의 기세로 삼겠다는 각오다. 이번 홈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전주는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공격에서는 김도형과 임태림, 곽동주, 김종진 등이 막강 화력을 선보인다. 중원 또한 신윤호와 김태연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며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수비에서는 심원성과 이요셉, 여인혁, 이주성이 상대의 공격을 막고 신에 골기며 이차성이 무실점에 도전한다. 양영철 전주시민축구단 감독은 "최근 3연패로 인해 중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선수단 분위기는 좋다"면서 "홈 경기인 만큼 반드시 승리를 거둬 팬들께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상위권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민축구단이 5월 1일 오후 2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K4리그 10라운드 춘천시민축구단과의 홈경기를 갖는다. 사진은 전주시민축구단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MLB 선발투수급 위력 KBO서 과시... ERA '선두'



지난 15일 오후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SSG 랜더스와의 경기, SSG 선발투수 김광현이 삼성 6회초 공격을 실점 없이 끝낸 뒤 웃으며 마운드를 내려오고 있다.

김광현, 평균자책점 0.36으로 1위에 올라... 역대 탈삼진 부문 6위로 올라서

SSG 랜더스의 에이스 김광현(34)이 메이저리그 선발투수급 위력을 과시하며 KBO리그를 평정하고 있다. 김광현은 지난 27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등판, 60닝 2피안타 10탈삼진 1실점(비자책점) 호투를 선보였다. 이날 양팀은 연장 승부 끝에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김광현은 시즌 4승 달성에도 실패했다. 하지만 김광현의 투구는 눈부셨다. 시속 150km에 이르는 직구와 140km대의 고속 슬라이더와 함께 체인지업, 커브를 가미해 롯데 타선을 팽팽 틀어막았다. 이날 자책점이 없었던 김광현은 평균자책점을 0.36으로 떨어뜨렸다. 25이닝 동안 자책점은 불과 1점이다.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은 0.60, 피안타율은 0.115로 매우 낮다. 김광현은 현재 메이저리그 선발급 투수가 한국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2019년을 마친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날스의 러브콜을 받은 김광현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즌 단축팀당 60경기 시즌인해 많은 경기에서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2020시즌 8경기(7경기 선발출전)에 등판한 김광현은 3승 무패 1세이브에 평균자책점 1.62의 좋은 성적으로 메이저리그에 인착했다. 김광현은 두 번째 시즌인 2021년에도 비교적 꾸준하게 팀의 선발 로테이션을 지켰다. 27경기(21경기 선발등판)에 출전해 7승 7패 평균자책점 3.46을 기록했다. 김광현은 세인트루이스와 2년 계약을 맺었다. 김광현은 시즌 후 4, 5년말급 선발투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메이저리그 잔류 가능성은 높았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의 노사분쟁으로 개막전이 연기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정상적인 시즌이 불투명했고, FA 신분인 김광현의 상황도 불안했다. 김광현은 결국 SSG의 러브콜을 받고 4년 15억이라는 초유의 계약을 맺었다. 김광현은 복귀 첫 시즌부터 격이 다른 투구를 보여주고 있다. 특유의 웃는 얼굴 속에서 경쾌한 투구폼과 빠른 투구 템포로 그가 마운드에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줬다. 김광현은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전날 10개의 삼진을 잡아낸 김광현은 KBO리그 통산 1479개의 탈삼진을 기록, 임창용(1474개)을 제치고 역대 이 부문 6위에 올랐다. 통산 139승을 기록 중인 김광현은 역대 6번째 140승 달성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한일장신대 양궁부, U대회 국대 되다

재학생 2명 · 졸업생 1명
중 청두 개최 U대회 출전



(사진 왼쪽부터)한일장신대 양궁부 안종민 감독, 이창민 선수, 박윤서 선수.

한일장신대 양궁부 2명이 오는 6월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제31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컴파운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졸업생 1명도 국가대표로 선발, 한일장신대 출신 3명이 태극마크를 달고 한 팀으로 뛰게 됐다.

이에 따르면 최근 광주 양궁장에서 열린 U대회 대표선발전에서 이창민(4학년), 박윤서(1학년) 학생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한일장신대 출신 김광섭 동문(2021년 졸업·울산남구청)도 국가대표로 뽑혀 후배들과 함께 출전하게 됐다. 또 한일장신대 양궁부 감독을 맡고 있는 안종민 교수(운동처방재활학과)는 컴파운드 남자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

한편 제31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당초 지난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연기돼 올해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중국 청두에서 열린다.

또한 한일장신대 출신 오진혁(2011년 졸업), 최용희(2007년 졸업), 송윤수(2019년 졸업) 선수는 9월 열리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김연수 교수(운동처방재활학과)는 "학교 구성원들의 기도와 관심, 응원 그리고 전 북체육회의 지원 덕분에 한일장신대 체육부에 좋은 소식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다"며 "열심히 훈련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육상연맹, 높이뛰기 우상혁에 포상금 5000만원 수여

대한육상연맹이 한국육상 최초로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한 우상혁(25·국군체육부대)에게 포상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대한육상연맹은 "27일 개최된 제2차 이사회에서 우상혁에게 특별 포상금 수여식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임대기 대한육상연맹 회장은 우상혁에게 5000만원을 시상했다. 세계실내육상선수권 금메달 포상금 3000만원에 한국 신기록 수립 포상금 2000만원이 합쳐진 액수다.

아울러 김도균 국가대표 코치와 이광필 국군체육부대 감독에게도 35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총 8500만원을 수여했다.

우상혁은 포상금 수상 후 "지속적인 해외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참가, 전담팀 운영 등 세계 무대 정상 도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대기 회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다음달 세계육상연맹 대이아 몬트리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상혁은 지난 2월 체코 국제실내육상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6을 넘으며 우승



과 함께 종전 자신의 한국기록(2m36)을 경신했다. 9월에는 한국육상 최초로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대기 회장은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 한국육상 최초로 금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를 달성, 국민 여러분께 기쁨과 감동을 선사한 우상혁 선수와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뉴시스

태권도원, 전북 ON 페스타서 관광 상품 홍보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영환)은 전라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여행업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가한 '2022 전북에 온(ON) 페스타(Festa)'에 세계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2022 전북에 온(ON) 페스타(Festa)'는 서울 여의도에서 27일과 28일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넘게 침체해 있던 전북 지역 단체관

광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관광 상품 관광설명회, 케이티이거즈 태권도 시범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022년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태권도원은 힐링과 연계한 '웰니스 상품'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해 페스타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기린미술관 개관5주년 기념

이흥재 초대전 (2관)

2022.4.1.(금) - 5.29.(일)

제22회 심흥재 개인전

2022.4.1.(금) - 5.29.(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기린오피스텔3층 관장 : 이현옥(010-8993-0147)